

기혼여성의 상담대학원 수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The Qualitative Analysis on Married Women's Learning Experience at Graduate School

박종환, 지명자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ong-Hwan Park(pjh1738@naver.com), Myung-Ja Ji(sdasuj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대학원 진학 경험에 관한 영향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과 기혼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괴리가 있으며, 또한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혼여성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심리적 갈등과 공허감, 도전을 통한 자기실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 일과 가정의 양립, 학업의 어려움, 신체와 경제적인 문제 등에 둘러싸여 고투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확고한 수학의지와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지지라는 자원을 잘 이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를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좋은 모델링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기혼여성 | 대학원 수학경험 | 질적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married women's graduate school experiences, as well as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the images of a model woman and that of a real life married woman,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aspect of social policies. Results showed that the reason married women enter graduate schools are psychological conflicts, feeling of emptiness, and self motivation for self realization. It was also found that once married women are in graduate school, they are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such as balancing work and family lives, dealing with academic difficulties and physical / economic obstacles as they struggle to continue their studies. After exploring how the study participants overcame their difficulties and accomplished changes in their lives with the best use of available resources such as firm willingness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his researcher wishes to present a sound guidance resulting from this study to married women who are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 keyword : | Married Women | Graduate School Experience | Qualitative Analysis |

I. 서론

기혼여성의 역할은 참으로 광범위하다. 결혼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의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하고, 아내요 어머니요 딸과 며느리로서의 다중 역할을 소화해 내야만 한다. 현대의 기혼여성들은 직업에까지 종사하는 경우도 많아 일과 가정 양립의 딜레마 속에서 고군분투하게 된다. 그 와중에 중년기에 진입하는 이들도 생겨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고 그들의 고충이 끝나지는 않는다. 희생적인 어머니로, 헌신적인 아내로, 순종적인 며느리로 젊은 날을 보냈지만 이제는 자상하고 포용력 있는 멋진 어머니요, 세련되고 활기찬 할머니가 되기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1]. 이런 삶의 여정에 속해 있는 본 연구자는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며 다른 기혼여성들의 삶을 추적해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과 기혼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괴리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게 되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반복되는 육아와 일상에서 오는 무력감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사회가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좋은 엄마’로서의 의무에 대한 부담과 재취업에 대한 불리한 사회적 구조적 여건들 속에서 정체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위축되고 있다[2].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일’은 자기 정체성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며 사회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일을 추구하게 된다[3].

둘째는 직장에서 남성들과 경쟁하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워킹맘으로서의 피로감[4]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역량의 부족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좌절하기도 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때의 경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능력 및 관련 업무 역량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용이 힘든 경우도 많다[5].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경력이전의 유사 일자리로

의 취업을 포기하고 저임금, 단순직 일자리로 하향지원하게 된다.

셋째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단절에서 오는 상실감이다. 오늘날의 자녀들은 ‘공부 경쟁’ 외에도 ‘소비경쟁’과 ‘외모경쟁’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상식, 스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대중 매체나 정보화 공간에서 진행되는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상식경쟁’에도 노출되어 있다[6].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시간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자녀와 충분한 소통이 힘들고 그들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생겨나고 사춘기 자녀의 반항, 이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7].

넷째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즉 자녀양육과 과도한 가사업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때 남편과의 역할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8].

다섯째, 중년 이후 신체적으로 노쇠해지고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남편들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므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게 되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9].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과도한 의존성과 경제능력 부재, 낮은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 박탈, 사회적 소외 증상을 경험하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으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우울과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 직면하여 기혼 여성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대학원 진학이다. 이 현상을 안현용(2013)은 학습단절을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성인 여성 학습자의 근대적 기획에 사로잡힌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검열,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10]. 오옥환(1996) 역시 교육이 여성 해방의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으며,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지위 경쟁을 위해 대학원을 돌파구로 삼는 것은 의외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였다[11]. 또한 강설화(2013)는 여성의 가정생활 영향을 통해 경험하는 갈등을 교육 경험을 통해 개선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12]. 따라서 대학원 진학은 기

혼 여성에게 고급 인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대학원 진학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맞물려있다. 우리사회는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13]. 또한 ICT의 발전으로 사물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비의 증가로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연보(2016)에 따른 대학원 여학생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80년 17%에서 2005년 44.3%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6에는 49%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다. 과정보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52.0%, 박사과정은 38.8%로 나타났는데[14] 이러한 현상은 대학원 진학이 학문의 심화뿐만 아니라 학문영역 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15].

심리정서적인 요인 또한 기혼 여성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사회의 전업주부를 경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맞닥뜨릴 때 기혼여성들은 좌절하게 되고 무시와 편견에 맞설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하게 된다[16]. 또한 자녀를 적게 출산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기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삶의 보람과 원동력을 얻고자 하며, 특히 자아실현 욕구는 대학원 진학이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역량을 한껏 키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 상담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어떤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으로서 상담대학원 수학 경험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여성으로서 상담대학원 수학 경험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여성으로서 상담대학원 수학 경험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기혼여성으로서 상담대학원 수학 경험이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고찰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참여자 자신으로부터 주어질 진술 자체에 초점을 두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17]. 일상의 세부적인 것과 사소한 것 속에 있는 중요한 것, 당연시 되는 것 속에 있는 특별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기혼 여성의 대학원 진학경험에 관한 의미와 영향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듣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여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환하였다[18]. 이는 기혼여성의 대학원 수학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서울 소재 S대학의 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기혼 여성 박사과정 학생 10명을 선정을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을 함께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사과정 학생 6명, 석사과정 학생 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신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나이	자녀	학력	경제 상태	직업
김숙영	51	2남	박사 6학기	상	전원학교 교장
장지연	38	1남1녀	석사 4학기	중	중학교 상담사
이미리	47	2남	박사 2학기	중	주부
김은경	38	2남1녀	박사 4학기	하	중학교 상담사
현지유	44	1남1녀	석사 4학기	하	주부
하영은	48	2녀	박사 4학기	하	유학생
정화선	40	1남	석사 4학기	중	놀이치료사
진연희	58	2녀	박사 4학기	중	상담소장
박지은	44	1남1녀	석사 4학기	중	세무관련 일
최선경	53	1남1녀	박사 6학기	상	요양원장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19].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 피상적인 답이 아닌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연구자의 느낌이나, 인상, 의문점, 주관적인 해석등도 기록을 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경우 추적질문을 하기도 했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미리 SNS를 통해 보내고 숙지를 하게 한 다음 심층면담을 가졌고, 반구조화로 진행된 심층면담에서 미리 계획된 질문 외에도 특정 사건과 결부된 느낌이나 영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유도하였다. 참여자들이 함께 학업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주로 수업이 있는 날 상담실이나 빈 강의실을 이용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시로 면담과 전화와 SNS를 통하여 보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들의 생활세계와 감정, 지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을 한 뒤 전사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인터뷰 내용

문항	질문
1	기혼여성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2	대학원 진학 경험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3	대학원 진학 경험이 자아존중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4	대학원 진학이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5	대학원에 온 후 대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6	기혼여성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대학원 진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나요?
8	대학원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추가 면담이나 서면, SNS를 통해 보충하면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사된 자료들을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분석하였다[20].

첫째, 기술들을 읽기-녹음된 자료를 들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기-각각의 필사본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며 반성하기를 하고, 출처기를 하면서 의미있는 진술들을 형광펜으로 표기해 두었다.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진술을 시도했다.

넷째, 조사된 현상을 철저히 기술하기-조사된 현상들을 기술하면서 그 현상들이 주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술하였다.

다섯째,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 확인하기-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시하기 위한 전형적 담화 쓰기와 유효성 확인하기, 진술 종합하기로 마무리를 하였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는 ① 자료의 검토 ② 의미나 주제의 추출 ③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④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⑤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으로 종합하게 되었다[21].

5. 윤리적인 고려와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써 질적 연구의 신빙성을 갖기

위하여 Patton(2002)의 근거를 이용하였다[22]. 먼저, 진실성을 갖게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자료에만 근거를 두었고, 연구자의 판단은 철저히 배제하였기에 데이터의 진실성은 의심이 없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름을 가명으로 바꿀 것과 인터뷰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조차 누구의 인터뷰 내용인지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도중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주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연구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또한 연구방법론도 수강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었다. 그리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Merriam(1998)의 삼각 검증법 방법을 활용하였는데[23], 주 연구자와 질적 연구 지도교수 및 동료연구자들과의 협력으로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일에 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비교절차를 통해 개념을 찾아내고 유사한 개념들은 한데 묶어 범주화를 했으며 추상화 작업을 통해 유목화를 했다. 총 76의 개념을 12개의 하위범주로 묶고, 최종적으로 4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했다.

표 3.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경험 및 의미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주요코드
동기	심리적 갈등과 공허감	육아로 소진, 중년의 위기감, 사랑과 인정의 욕구에 억눌림, 남편주도의 삶에 무력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욕구, 자녀와의 갈등, 상담자로서의 좌절 경험, 열등감
	도전과 자기 실현	학업에 대한 열망, 상담사의 꿈, 상담센터에 대한 비전, 공공증 해소, 역량 있는 강사, 더 나은 스펙, 취업 욕구, 전문적인 봉사,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음, 삶의 질 향상
자원	자신의 역량	수학에 대한 본인의 강한 의지, 힘든 상황을 타개할 역량, 가사와 일 양립을 무난히 소화, 자신을 위한 투자

	가족의 지지	남편의 동조, 친정부모의 격려와 지지, 남편의 배려와 지지, 시부모의 응원
	지인들의 응원	긍정적 피드백, 공감과 배려, 동료관계의 유대감과 지지, 상부상조
한계점	양립의 한계	시간과 체력의 부족으로 공부·가사 모두 힘들, 다중역할 소화하기 힘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 식사준비 미흡
	학업의 한계	논문작성의 부담감, 시험·학업 스트레스, 배워야 할 학문의 양에 압도됨, 과제의 어려움
	신체적 한계	건강에 적신호, 나이로 인한 시력저하,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새로운	관찰은 나	자존감 회복, 자기인식이해의 증가, 에너지 충전, 객관적 시야 확보, 역량이 커짐,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 자기계발과 지적 능력 습득, 자유의지로 선택의 폭을 넓힘, 자기 주도적 삶, 자기 효능감 획득, 자아실현
	행복 디자인	가족관계 회복,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음, 남편을 포용하게 됨, 관계중심적 자녀 양육, 원가족들도 전문가로 대우해줌, 자녀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음,
	쓸모 있는 나	자녀학습에 도움, 활동반경이 확장됨, 타인에 대한 이해 증가, 적성에 맞는 직업 찾음, 전문가로서 활동, 일처리 신속 정확, 내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부한 것 일상에 활용, 말의 무게감,
	끈끈한 우리 사이	인간관계 넓어짐, 전우 같은 사람들, 유대감으로 긍정 에너지 얻음, 상담공부로 친한 사람 많아짐, 인격적 만남, 전문가들의 삶에서 배움, 원활한 의사소통,

1. 대학원 진학의 동기

1.1 심리적 갈등과 공허감

기혼여성들은 직업을 가진 경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남성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다중역할을 소화해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맞물려 많은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직업을 갖지 않는 여성들은 육아로 소진되고 사회의 편견과 무시로 인한 중년의 위기감을 느끼며 사랑과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한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열등감 속에서 삶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육아도 처음 해 보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아이들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거의 잠을 잘 안 잤어요 잠자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10번씩 깨고 하니까 저도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다보니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지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참여자2, 장지연).

학부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나이가 40이 되니까 중년의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일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참여자6, 하영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대학원에 그것도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했었어요(참여자8, 진연희).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진학하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열과 성을 다 해 매달렸던 것 같아요(참여자9, 박자은).

1.2 도전과 자기실현

공부에 대한 열망은 진학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송대를 졸업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서, 오래 꾸어온 상담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혼 여성들은 대학원에 오게 되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다시 일하고 싶은 욕구와 더 나은 직장이나 대우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전업주부들의 재도약 욕구 또한 이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남편과 청년교회를 개척했어요. 남편은 일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어요. 저는 매번 밥하고 아이 양육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남편처럼 좀 더 전문적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왔어요(참여자4, 김은경).

사춘기 자녀와 갈등하며 부모역할 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강사과정까지 밟게 되었어요. 집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게 툭툭 던져지는 질문들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이론과 지식을 겸비한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 오게 되었어요(참여자1, 김숙영).

저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제 꿈이 80세까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0세까지 일을 하려면 뭔가 다른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오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한 50 넘으면 상담사를 해보야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참여자3, 이미리).

2. 자원

2.1 자신의 의지와 역량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은 자신의 의지였다. 결단을 하고 나면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이 생겨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들을 극복할 역량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다수 참여자들의 경우 다중역할과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 가족들의 비협조와 주변 사람들의 물이해를 그들의 확고한 의지로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의무감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공부를 할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면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대학원에 오게 되었죠. 제 마음이 가장 중요했죠(참여자7, 정화선).

저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내가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고 가야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제 결심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남편도 인정을 하죠. 저 나름대로 가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웬만하면 저녁수업은 듣지 않고 주부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려고해요(참여자3, 이미리).

2.2 가족의 지지

참여자들 대부분이 가족들, 특히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참여자와 마지못해 인정하는 가족을 둔 참여자도 있었다. 친정 부모들이 많은 지

지를 하는 반면, 시부모들은 인정해주고 대견해 하면서도 가사나 자녀 양육, 경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이 컸죠. 저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당신이 개발되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참여자4, 김은경).

가장 좋았던 것은 갈등만 해오던 아들이 엄마를 전문적인 상담가로 인정해 준 거예요. 또 남편도 당신 그 공부 정말 잘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 줄 정도로 가족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참여자1, 김숙영).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친정 부모님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죠. 그런데 남편이 더 공부할 의향이 없다보니 시부모님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 높은 학력으로 남편보다 잘 나갈까 봐서요(참여자7, 정화선).

2.3 지인들의 응원

힘든 학업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주변의 격려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함께 공부하는 이들과 긴밀한 유대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공감과 배려를 받고,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 등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수학으로 맺어진 식사 때 동기들, 그리고 상담 수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이 아직도 제 주변에서 지지 세력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해요(참여자8, 진연희).

제가 만약에 혼자만 공부하고 어떤 집단이나 또 수업이나 이런데서 상호작용 없이 그냥 혼자서 공부를 했더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많은 스승과 동기,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 받고, 또 그런 것이

더 공부하게 선순환을 이루는 것 같아요(참여자1, 김숙영).

3. 한계점

3.1 양립의 한계

수학을 하면서 가장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양립의 한계이다. 체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시중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기도 했다.

일과 학업 그리고 가사까지 챙기는 다중 역할이 정말 힘이 들어요. 아이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들어주고 싶은데 시간 체력의 부족으로 제가 먼저 잠이 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애들 준비물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특히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미안하고 속상하죠(참여자2, 장지연).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드네요. 남편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 자원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자 아니냐고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부모의 결정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이죠(참여자6, 하영은).

3.2 학업의 한계

참여자들 대부분이 논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과제나 각종 시험들도 힘들어 했다. 학업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학문의 방대한 양에 억눌리기도 하고, 끝없이 암기하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 지기도 했다.

사실 공부는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이 논문이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한데 여러 역할을 하다 보니 잠에 쫓기게 되고 그것을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통합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올 때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 안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도 들어요(참여자1, 김숙영)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상담분야는 추가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박사과정은 도전과 견뎌내기를 잘해야 하는 긴 여정 같아요(참여자3, 이미리)

영어시험 보고, 졸업시험 보고, 프로포잘 하고 논문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논문은 이제 시작단계인데 압도당하고 있어요(참여자9, 박자은)

3.3 신체적 한계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기혼 여성들은 30대부터 60대에 걸쳐있다. 나이가 많은 경우 집중력과 암기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도 했다. 장거리 통학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시력의 약화로 책과의 씨름이 힘겨운 이들도 있다. 만성적인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드나드는 이들도 있다. 젊은 기혼 여성들은 육아를 가장 힘든 요인으로 꼽았다.

아무래도 2~30대에 공부하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공부에 집중도 안되고 무엇보다 일이 있는 사람이라 짬짬이 공부를 하는 만큼 시간 자체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꾸 잊어버리는 나이가 됐는데 암기를 하려니 늘 버벅대곤 하죠. 사실 그럴때는 자존감 바닥이죠(참여자10, 최선경).

자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했는데 완전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아이들, 남편,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참여자4, 김은경)

자4, 김은경)

일단 눈이 침침해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40대 중반인데도 시력저하가 극심해요. 요즘 돋보기도 사용하고 다초점렌즈도 맞추고 했는데 책을 읽으려면 쉽게 피로해져요(참여자3, 이미리).

일도 해야 하는데 숙제는 많고, 아이도 돌보아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밤새워 숙제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참여자7, 정화선)

4. 삶의 변화

4.1 괜찮은 나

대학원 수학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기인식이나 이해가 증가하고 역량이 커졌으며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다. 당연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었고, 지적능력을 습득하여 자기개발을 하게 됨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겨나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복경대를 나왔는데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자존감이 사실은 굉장히 낮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기가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결혼해서는 남편주도의 삶을 살았죠. 이전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지요(참여자6, 하영은).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여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좋은 영향이 있었고 저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고, 또 꿈을 이루는 한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5, 현지유).

제가 좋아하는 스카렛 박사의 “아직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에 인생의 목적을 성숙에 두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요. 저 역시 이 소망을 가지고 대학원에 왔어요. 더 많이 탐구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조

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때 좀 뿌듯합니다. 배움과 맞물려서요(참여자8, 진연희).

4.2 행복 디자이너

기혼여성들의 대학원 수학 경험이 가족의 삶에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했다. 오늘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거주 하면서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이 따로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으로 흔하다. 하지만 상담대학원이라는 소통의 장에 주부가 입문함으로써 가족의 소통도 함께 이루어져 행복의 가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도 갈등을 느낄 때 억압하고 있다가 폭발시키는 방법을 썼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해요. 가족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가정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참여자1, 김숙영).

진학을 하면서 더 많은 활력이 생겨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자기개발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정에 활력이 넘쳐나죠(참여자4, 김은경).

4.3 쓸만한 나

‘쓸만한 나’로 새로남을 경험하게 된 것은 기혼여성들의 확고한 수학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배움의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대학원 진학을 지인들에 권유하고 싶다는 의견을 참여자 모두가 피력할 만큼, 수학경험은 기혼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이었다.

저는 진로를 찾기 위해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과 전문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욕심에 의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로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구요, 또 사회적인 관계망이 넓어지다 보니 각 기관에서 교육요청을 해와요. 덕분에 아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참여자1, 김숙영).

저는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무슨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 온 것이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사모들이나 선교사 부인들을 무료로 상담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참여자5, 현지유).

제 일터에 한 칸 정도의 연구소를 만들어 영유아, 노인 복지 일을 하는 분들의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 일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잘 알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약도 발라주고 호호도 해 주고 싶어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 또한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참여자10, 최선경).

4.4 대인관계의 질(끈끈한 우리사이)

참여자들 대부분이 대인관계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전에 친하던 사람들과는 다소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과 시간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학우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학과는 상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공부만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좀 상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수업 중에도 계속 토론하고 심층을 파헤치다 보니...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구요(참여자5, 현지유).

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공부하다보니 직원들 뿐 아니라, 지인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해의 폭이 넓

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츰 사람들과의 관계망도 예전보다는 넓어지고 말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10, 최선경)

믿을만한 친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그런 만남은 목적이 있는 만남이죠. 그런데 학교에서의 만남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나누어주고 싶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을 많이 느껴요. 또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수준 높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참여자9, 박자은)

IV. 논의 및 결론

기혼여성들이 교육의 장으로 재진입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개인 내적 심리 요인 및 사회의 요구 등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 개인의 자원과 한계를 고려하여 삶의 변화를 분석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다양하게 도출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를 하여 주제를 끌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들의 상담대학원 수학은 그들의 가정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게 했다. 주부가 가정의 ‘행복디자이너’로 변신하자 반항을 일삼던 아이들이 소통하는 아이들로 거듭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고 관계중심적인 양육을 통해 기능하는 사회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아내의 대학원진학에 지지자로 나선 남편과의 관계도 더 긴밀해지고 깊어지면서 가족관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선민(2018)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맥락 속에서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24]. 이는 최유리(2017)의 중년기 여성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촉진요인으로 ‘남편의 격려와 지지’를 꼽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25].

원가족들도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물질양면의 지지를 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자신의 투철한 수학의지와 더불어 가족과 주변의 지지라는 강력한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26]. 그러나 남편의 반대와 아들보다 높은 학력을 염려하는 시어른들의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기혼여성들은 대학원 수학 경험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았다는 점이다. 기혼여성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서, 결혼 전에는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던 여성이 경력단절[27]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육아에 전념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전업주부가 가족들에게 올인하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삶의 기대가 점점 사라지면서[28] ‘쓸모없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소은(2016)의 사전 연구에서 응답자의 70%가 자아실현을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것[29]에서 보듯이 기혼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 편견과 무시, 압박 등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로 갈등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쓸모 있는 나’를 향한 욕구와 변화를 위한 타개책이 맞물려 삶의 돌파구를 찾게 된다고 성기정[30]은 주장했는데 본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은 직장에서 남성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31]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교육의 장으로 재진입을 시도하는데 이는 교육이 고급 전문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32].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학업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야만 하며 이런 다중역할은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3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들의 각별한 지지 속에서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일과 가정이라는 다중역할을 부여받아 고투하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김도경(2014)의 연구 결과와 같다[34].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강설화(2013)가 이미 주장했듯이 기혼여성의 고급인력양성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체제와 국가적인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의하면 진로와 관련한 기혼 여성의 대학원 수학의 결과는 역량강화를 통해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끈끈한 우리사이’를 통한 대인관계의 확장과 질의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과는 다소 소원해진 반면, 심층적인 사귀는 기회가 많은 상담대학원의 특성으로 질 높은 대인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서로의 삶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계속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전공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가족 및 직장에서의 관계개선에 긍정적이었음을 피력했는데 그것과 일치한 결과였다[36]. 이는 상담이라는 특수한 학문을 통한 자기 노출 내지는 자기 개방을 통하여 진실한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가족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는 타인들과 더불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행복감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방황도,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도, 결국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이다. 이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와 사회성이 있으며, 자기 계발 욕구가 있고 평생교육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경우 행복감이 높다는 류숙희·전수경(201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37].

넷째, 기혼여성들은 대학원 수학이라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삶의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의 자아개념의 변화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자아개념을 낮추는 요인으로 김소은(2016)은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불안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등을 언

급했고[38] 이복희, 박아청, 이정혜(2012)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직업역할에 대한 적응, 자녀양육역할에 대한 적응을 들고 있는데[39], 대학원 진학이라는 큰 장에서 이런 요인들이 충족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이의 경험철학에 따르면“경험은 삶의 기본단위이며, 따라서 의미 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삶의 구조와 성격을 탐구하는 것”[40],이라는 점에서 대학원 진학은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기혼여성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괜찮은 나’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개발과 지적능력 습득을 통한 자기효능감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고 에너지 충전을 경험하며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더불어 가족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편 ‘슬만한 나’로 거듭나면서 외적인 유용성이 크게 증가하여 여러 분야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학원 수학 경험은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본 류숙희, 전수경(20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41] 수학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연구자가 굳이 ‘상담’대학원에 수학 중인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연구자가 속해있다는 편리성과 아울러 면담과정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수학경험의 의미와 변화를 더 풍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음을 밝힌다. 몇몇 연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박선민(2018)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의 경험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42]. 또한 기혼 여성들은 대학원 졸업 이후 자신이 선택할 직업을 고려할 때, 타인의 문제를 듣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분야가 자신들의 성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부들의 특성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면서[43] 자기 이해와 수용

이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상담대학원에서 수학중인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마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직시하게 되면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연구자가 속한 상담대학원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대학원에 수학중인 학생들에 국한되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원에 수학중인 학생들과 혼합하여 연구한다면 비교연구의 의의도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들에 한해서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여성들과 비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되 기혼여성과 비혼 혹은 비혼 여성의 상담대학원 수학 경험 연구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기혼남성들의 대학원진학 경험의 의미와 영향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는 상담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하고, 그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기에 모든 상담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시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앞으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중년기 여성의 부양 경험을 연구한다면 질적, 양적 연구의 통합된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여섯째, 질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신빙성 높은 타당도 방안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아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여울,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정신건강상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5.
- [2] 성기정, 경력단절 육아 전업주부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 이창향, 재취업 준비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 이자명,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 차이,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 박은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중년여성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6] 유선옥,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인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대인불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7] 오은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8] 김도경, 학교상담자의 일-가정 갈등수준이 가정소진 및 직장소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9] 허제은, 중년여성의 영적 안녕,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0] 안현용, 고등교육 과정으로 '되돌아온' 성인여성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1] 오옥환, 여성교육학의 필연성과 한계성, 교육과 사회 변동: 교육사회학 논문 묶음, 교육과학사, 1997.
- [12] 강설화, 기혼여성이 느끼는 대학원 생활의 의미와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3] 정은정,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14] 교육통계 서비스, 2016 교육통계자료집, 2016.
- [15] 김은하, 임연옥, 박경숙, 김남영,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13-125, 2008.

- [16] 강설화, *기혼여성이 느끼는 대학원 생활의 의미와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고미영, *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청목출판사, 2016.
- [18] 신갑숙,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9] A. Giorgi(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 [20]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i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1, 1978.
- [2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I*, 아카데미프레스, 2015.
- [22] M. Q. Patton,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2.
- [23]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Sage, 1998.
- [24] 박선민,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기혼 여성의 학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25] 최유리, *중년기 여성의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26] 안현용, *고등교육 과정으로 되돌아온 성인여성 학습자의 학습경험 분석: 모성적 돌봄 경험과 근대적 학습 경험의 상호 간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7] 이정숙, *경력단절 여성의 희망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취업결정요인*,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8] 정현정,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양육 병행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유아 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29] 김소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신체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0] 성기정, *경력단절 육아 전업주부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1] 이창향, *재취업 준비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중년 여성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2] 오창환, 정철영,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 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1권, 제4호, pp.199-218, 2009.
- [33] 김은하, 임연옥, 박경숙, 김남영, “기혼여자 대학원 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13-125, 2008.
- [34] 김도경, *학교 상담자의 일 가정 갈등 수준이 가정 소진 및 직장 소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5] 강설화, *기혼여성이 느끼는 대학원 생활의 의미와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6] 박경애, 방기연, “교육대학원 상담 전공 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상담학 연구*, 제8권, 제3호, pp.1185-1204, 2007.
- [37] 류숙희, 전수경, “개인변인 및 평생학습 경험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2017.
- [38] 김소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신체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9]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 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1호, 2012.
- [40]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대백과 사전*, 하우동설, 1998.

- [41] 류숙희, 전수경, “개인변인 및 평생학습 경험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2017.
- [42] 박선민,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기혼 여성의 학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43] 고범석, *주부의 상담대학원 진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저 자 소 개

박 중 환(Jong-Hwan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문학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상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 교원
- <관심분야> : 상처받은 내면아이 상담과 심리치료

지 명 자(Myeong-Ja Ji)

정회원



- 2007년 2월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문학사)
 - 2017년 2월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목회 및 사모 상담과 심리치료